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 '행정력 집중'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 대상 전문가 초청 특강·업무연찬... 특례 방안 논의 등 전략적 업무수행 의지 다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위해 전문가 특강을 수강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특자치도 특례발굴을 위한 특강 및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국 소속 간부를 비롯한 문체국 전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특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북도는 민선8기 들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련 산업 여건 조성에 강한 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특별자치도 법안입법 관련 전문가로 이름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를 초청해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특례발굴'을 주제로 특별강연과 컨설팅시간을 가졌다.

이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2시간 특례 발굴 건 반영 전략과 향후 추가발굴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격의 없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특례방안은 △지역거점 무장에 국립예술공연장 건립,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특례, △도내 콘텐츠진흥산업 세제지원 특례, △해안문화유산국립해안역류특별거점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무 연찬과 전문성 강화 활동을

다짐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우리 전북도에 새로이 필요한 권한과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특자치도를 어떻게 알찬 내용물을 채워갈 것인가 함께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료들과 우리 전북도만의 문화·체육·관광 혁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환의 시대 전라북도를 변화하는 첫 발걸음으로 특자치도 지정과 특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논의된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의 모습. (사진=전북도청 제공)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한마음 응원'

2023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 정기총회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 이하 범도민지원위)는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김동수 범도민지원위 이사장을 비롯한 범도민지원위 이사 및 운영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작년 범도민지원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백승기 사진지식정보학회 상임 이사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꿈 같아서 재인생으로 내실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범도민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로써 대의원 88명을 남부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상한액인 최대 50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운영회 회비 납부에 대한 인원을 가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동수 이사장은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무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올 8월 잼버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단절된 국제 교류와 협력의 문이 전북에서 활짝 열릴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도교육청,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맞손'

도-도교육청-TP, 교육프로그램 운영·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SW미래채움' 등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에 대한 협력 약속

전북도는 13일 전북도교육청, 전북테크노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 및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사업 확산, 교육정책 간의 협력으로 상호간 상승 효과(시너지)를 발휘하고자 체결했다.

협약은 △도의 인재양성 사업과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교육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풀 활용의 상호 협력,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홍보 협조 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전반에 있어 협력 사항을 담았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은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3년간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과기부 SW미래채움 공모 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SW미래채움 사업에 선정되면 남원시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거점교육센터를 구축해 드론, 메타버스,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소프트웨어 교육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미취업청년, 경단녀, 퇴직전문가 등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역 내 전문 강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교육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찾아



전북도는 13일 전북도교육청, 전북테크노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 및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는 교육, 방과 후 교육 등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을 교육할 예정이다.

오택립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교육이 바로 인구이고, 경제이고,

미래"라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조봉업 행정부지사, 문체부 방문해 현안사업 건의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전병국 문체부 제1차관 조용만 제2차관 등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 부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참가 청소년들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한류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에서만 결합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조 부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및 국립후배체육사문화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설명



하고 국가예산 반영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전라북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군공조 체계를 다지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 시행

150억 원 규모... 최대 2천만 원 한도·대출금리 중 2% 이하보전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자금애로 해소·경영 안정화 목적

전북도는 도내 자영업자의 자금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전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 도모가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830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업체에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금리 중 2%를 2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거나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

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면접담임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원, 단재 특강교수
- KBS TV아침매일, MBC TV, JT, TBS주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니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서식 '365스피치이슈네이션'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시도사 등 저작물 소유자

(김양욱 교수)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